

문화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작업실에서 신호윤씨가 무더위를 잊은 채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 1일 오후 2시 대인시장 신호윤 작가의 작업실. 좁은 창으로 밀려드는 열기 속에서 신씨는 낡은 선풍기에 의지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신씨는 올 하반기 개인전을 목표로 돼지머리와 족발에 문신(tattoo)을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잦은 비로 계획한 작업 일정이 늦춰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더위도 잊은 채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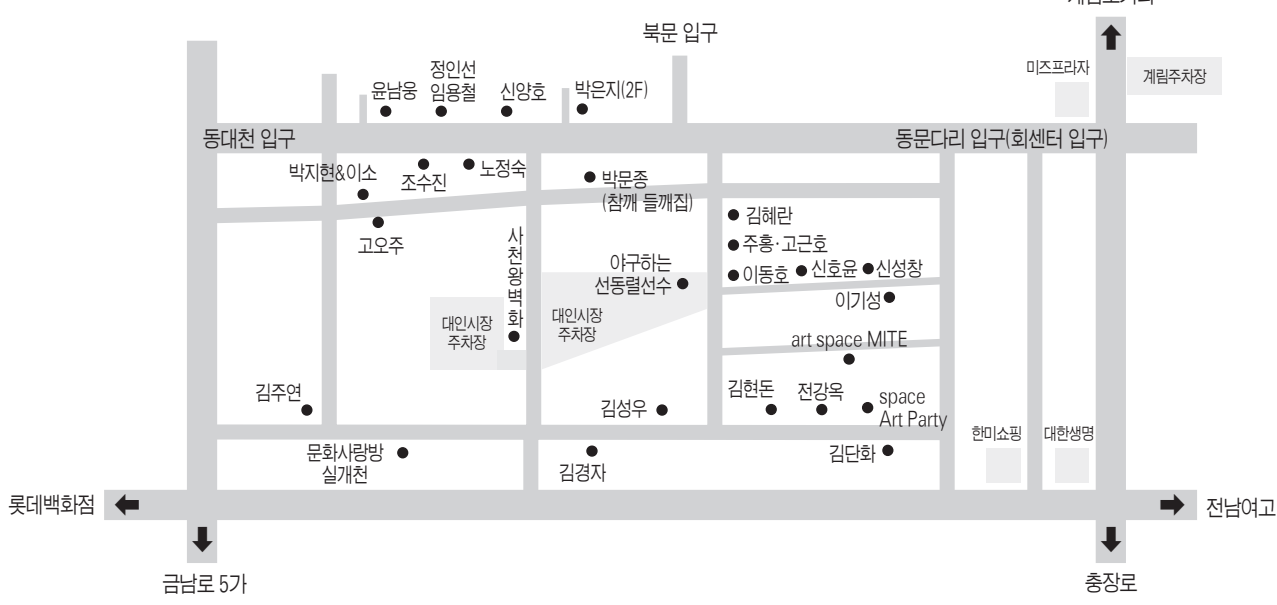
신씨는 지난해 12월 '대인시장 예술인공방거리 조성사업'(총괄큐레이터 박성현)의 핵심 프로그램인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장기(1년)작가로 선정돼 대인시장 빈 점포에 작업실을 냈다. 대인시장에는 현재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단기(4개월)·장기작가와 자발적으로 작업실을 낸 작가 등 30여 명의 예술가들이 미술관을 벌이고 있다.

삶의 현장 시장통서 창작 몰두

삶의 현장인 시장은 작가들의 창작 열정을 불태워왔다. 신씨는 대인시장에서 흔하게 판매되는 돼지머리를 소재로 새롭게 문신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비슷한 시간 인근에 위치한 신양호씨의 작업실에서도 컴퓨터 부품을 뜯어내고, 칼을 부러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난해 8월 이곳에 작업실을 낸 신양호씨는 대인시장 인근에서 주운 컴퓨터 부품과 칼 등을 재료로 '갈치' '병치' '줄뿔' 연작을 만들고 있다. 오는 9월 일본 도쿄 '갤러리 스트렌저'에서 개인전을 열기로 한 신양호씨는 요즘 작업에 더욱 신바람을 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블루닷 아시아(20~25일까지)'에서 작품 14점 중 13점을 판매하고, 우수작가상을 받기도 했다. 대인시장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에 입주해 있는 작가들은 요즘 창작과의 정쟁을 받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너도 나도 피서지를 떠나는 게 대체이

대인시장 예술인 공방 거리



올 여름 '산티아고'로 떠나자

스페인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일명 산티아고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곱의 무덤이 있다. 10세기 사도 야곱의 유해가 발견된 이후 유럽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성지(聖地)가 된 곳이다. 특히 여러 갈래의 순례길 가운데 프랑스의 소도시 생 피르포르에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약 800km의 코스가 가장 유명하다. 걸어서 완주하기까지 약 30일 남짓 걸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다. 1993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뒤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자리잡았다. 국내에서 '산티아고 길'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다. 브라질 출신의 인기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산티아고 길에서 얻은 깨달음을 소재로 쓴 에세이 '순례자'가 2006년 국내에 소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파울로 코엘료는 유명기업의 임원직을 버리고 어느 날 훌쩍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로 떠났다. 중년의 나이에 인생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였다. '순례자' 이후 국내 출판계에는 여행가와 작가 등이 산티아고 길을 여행하며 기록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 가운데 서명숙씨는 '산티아고'로 인해 인생이 180도 바뀐 케이스.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 편집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의 서씨는 '삶의 피로'에 지쳐 떠난 800km의 산티아고 여정에서 고향 제주를 떠올렸다. 산티아고 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을 제주도에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사단법인 '제주 올레'를 발족하고 사라진 길을 되살려냈다. 올레는 동해의 넓은 골짜기로 연결되는 집 앞의 좁은 골짜기를 의미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남제주 일원의 약 920여 km에 해당되는 지역이 현재까지 13개 코스로 나뉘어 개발됐는데, 일단 걷기 시작하면 족히 5시간은 걸린다. 근래 '올레'만큼 근사하게 제주를 알린 홍보사절도 없다. 올레는 '입소문'으로만 지난달까지 약 8만여명이 이 곳을 다녀갔다. '올레'의 열풍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지리산에도 지난 5월 '올레'라는 옛길을 탄생시켰다. 5개 구간 70여 km가 개통된 올레길에도 '도보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 뿐인가. 광주에도 최근 동구 산수오거리에서 서석대에 이르는 11.2km의 '무등산 옛길'이 복원됐다. 개방 한달째 만에 1만2천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올레나 무등산 옛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 '느리지만 여유 있는 삶'에 대한 현대인들의 갈증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이다. 삶의 속도에 떨려왔던 만큼 보고 달려왔다면 이번 여름엔 타박 타박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자. 올레길이나 무등산 옛길도 좋고 그냥 이름없는 시골길도 좋다. 걷는다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원초적인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이다. 내가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다. 거기가 어디든 첫 걸음을 떼는 그곳이 바로 '산티아고 길'이 아닐까.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무더위 속 청년작가들의 비상 날개짓

대인시장 공방거리엔 땀 그리고 예술

지난 이틀 작가들엔 그저 '사치'일 뿐이다. 작업에 몰두 하다 보면 무더위를 느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이열치열인 셈이다. 해외 출품·전시 구상 바쁜 나날. 부부작가인 고근호·주홍씨의 작업실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2월 이곳에 작업실을 낸 고씨는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만화 100년'전과 예술의전당 '미술과 놀이'전에 작품을 보낸 뒤 실 틈도 없이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4일)에 출품할 작품을 만들고 있다. 고씨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 재미와 예술을 가미한 새로운 소재를 선보일

계획이다. 아내 주씨도 오는 10월 개최되는 2009광주세계광엑스포의 전시 커미셔너를 맡아 전시 구상을 위해 작업실에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주씨가 기획한 '마인드 스펙트럼'전은 상무시민공원에 컨테이너 30여 개를 설치한 뒤 이남, 송봉채씨 등 10여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박성현 총괄큐레이터는 "시장이라는 공간이 의외로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면서 "작가들이 모여있다 보니 서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토론하고 검증하는 토대로 마련돼 작가들의 창작열기로 더위를 느낄 틈이 없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1318청소년밴드, 꿈을 펼쳐라

市 청소년문화의 집 등 육성 프로젝트

광주 1318청소년밴드, 꿈을 펼쳐라. 광주시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장금순), 시하나 노래하나(대표 한보리), Ant Sound(대표 오영목)는 8월부터 1318청소년밴드 4팀을 대상으로 창작과 공연 기획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독립콘서트를 개최하는 지원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번 집중지원 프로젝트에는 지난 6월에 열린 광주 청소년음악페스티벌(사진)의 청소년음악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광주지역 5팀 중 밴드 3팀(유오디

아, 미르, 나잘난)과 퓨전만타극 제작팀 나르샤 밴드 등 총 4팀이 참여하며 4개월간 창작과 공연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3일부터 5일까지 1차 공동교육에서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 박관서 시인과 함께하는 시 창작과정, 한보리 대표(시하나 노래하나)와 함께하는 노래 창작의 기초교육이 실시된다. 또 이 팀들은 8월 '창작곡 만들기', 9월 '편곡과 연습', 10월에는 '공연 기획과 연출'에 대한 교육을 거치며 오는 11월에는 각 팀별로 독립콘서트를 갖게 된다. 한편 광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시하나 노래하나,



Ant Sound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청소년 음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375-13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학습·진로 등 상담교실

무등도서관 11~13일

광주시립무등도서관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11일~13일까지 사흘간 '다가가는 상담교실'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교실에서는 광주시동부교육청 소속 Wee센터 전문 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인 학습, 진로, 성격, 교우관계 등 고민을 상담 해결 예정이다. '다가가는 상담교실'에 참여를 원하는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서비스운영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서관 1층 전시실을 찾아 신청하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062-613-535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영화안내 HAPPY TIME' (Movie Guid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such as 메가박스, 콜롬버스 시네마, 하미 시네마, 씨너스 전대, and 제일 시네마. Each listing includes movie titl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